



## 천사<sup>川沙</sup> 김종덕<sup>金宗德</sup>의 생애<sup>生涯</sup>와 거경공리설<sup>居敬窮理說</sup> \*

추제협\*\*

1. 머리말
2. 생애 — 이상정의 만남과 성인지학의 길
3. 단서 — 성리설과 『심경강록간보』의 특징
4. 입론 — 거경공부 증시와 정좌구증설
5. 맺음말

### 요약

본 논문은 천사 김종덕의 사상, 특히 공부론을 개괄적으로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그는 대산 이상정의 직전 제자임에도 생애를 비롯해 학문과 사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우선 그의 삶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성학을 위한 위기지학, 특히 인간다움의 실현을 학문의 목표로 삼았음을 밝혔다. 특히 1759년 나이 36세 때 이상정의 문하에 나아간 것은 그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동안 힘쓴 과거지학을 버리고 성인지학을 목표로 산림에

\* 이 논문은 한국국학진흥원의 ‘천사 김종덕의 학문과 사상 학술대회’(2020.11.17.)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임.

\*\* 秋制協, 계명대학교 철학윤리학과 조교수

은거하며 오직 학문에만 몰두하며 살기를 결심하기 때문이다. 스승 이상정은 이를 흡족하기 여기며 죽기 전까지 강학과 서신을 통해 많은 학문적 교감이 이루어졌고, 이는 문헌에 있던 여러 동문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학문에서도 김종덕은 스승의 학설을 계승하면서도 자신의 학문적 특징을 조심스레 드러낸다. 그는 성인지학의 핵심이 심성함양에 있다고 판단하여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거경 중시의 공부론을 전개했다. 즉 감정이 일어나기 전 미발 단계에서 마음의 중을 얻기 위해 경을 통한 주정공부를 강조했다. 이는 감정이 일어난 후 이발 단계에서도 지속되지만 『대학』을 중심으로 한 경전공부를 겸하여 그 올바른 뜻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이러한 마음과 독서의 체인공부는 실천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온전해질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는 스승의 설을 넘어 이황의 학문에 닿아 있으며, 이를 더욱 옹골게 계승한 면이 없지 않다.

주제어

: 김종덕, 이상정, 위기지학, 거경, 정좌구중

## 1. 머리말

우리에게 김종덕(金宗德(川沙), 1724~1797)이란 이름은 낯설다. 한때 『심경부주(心經附註)』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고, 이에 편승하여 『심경강록간보(心經講錄刊補)』가 부각되면서<sup>1</sup> 이상정(李象靖(大山), 1711~1781)에 이어 이를 마무리한 인물로 간혹 언급되곤 했으나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다. 그가 이렇게 잊혀진 이유는 무엇일까.

퇴계학파는 흔히 그의 직전 제자로 불리는 조목(趙穆(月川), 1524~1606)을 비롯해 김성일(金誠一(鶴峯), 1538~1593), 류성룡(柳成龍(西厓), 1542~1607),

1 홍원식 외, 『조선시대 심경부주 주석서 해제』(예문서원, 2007), 356~365쪽.

정구鄭逵(寒岡, 1543~1620)에게서 확산된다. 이 중 김성일은 장흥효張興孝(敬堂, 1564~1633)를 시작으로 외증손인 이현일李玄逸(葛庵, 1627~1704)과 그의 아들인 이재李裁(密庵, 1657~1730), 그리고 외손인 이상정으로 이어지면서 뚜렷한 학맥을 형성하게 되었다.

특히 이상정은 그 문하에 많은 학자들을 배출함으로써 이러한 학적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남한조南漢朝(損齋, 1744~1809)를 거쳐 류치명柳致明(定齋, 1777~1861)으로 계승되고, 이는 다시 김흥락金興洛(西山, 1827~1899), 김도화金道和(拓庵, 1825~1912) 등으로 연결되어 19세기 근대 전환기를 주도한 인물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김종덕은 바로 이러한 학맥의 중심에 있는 이상정의 직전 제자이다. 그는 1759년 이상정의 문하에 나아간 20여 년 동안 산림에 은거하면서 과거지학을 버리고 성인지학을 목표로 오직 학문에만 몰두했다. 특히 사제 간의 강학은 물론 이종수李宗洙(后山, 1722~1797), 정종로鄭宗魯(立齋, 1738~1816), 이만운李萬運(默軒, 1736~1820), 신체인申體仁(晦屏, 1731~1812) 등 동학들과 교유하며 이황에게서 이상정으로 이어진 사상적 전통을 온전히 계승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그를 『고산급문록高山及門錄』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기묘년에 여러 아우들과 (대산)선생에게 배우러 갔다. 선생이 높이 예우하고 은연 중에 학문 전통을 전하려는 뜻이 있어 손자 병운秉運에게 명하여 (천사)공에게 배우게 했다. 선생이 『퇴서절요退書節要』를 편찬할 때 많은 편지를 왕복하며 도왔다. 사람들이 “문하에 누가 학문을 좋아합니까?”라고 물으면 선생은 첫째로 공의 독실함을 칭찬했다.<sup>2</sup>

2 李象靖, 『高山及門錄』: 「金宗德」. “己卯, 與諸弟, 負笈諸益先生. 甚敬禮之, 隱然有傳鉢之託, 而明孫秉運, 贊學于公. 先生編退溪節要, 多有往復贊助. 人間門下, 孰爲好學, 先生首稱公之篤實.”

김종덕의 학문적 독실함과 이에 대한 스승 이상정의 믿음이 잘 드러나 있다. 여기서 학문적 독실함이란 이상정의 사상적 전통을 잘 계승하고 있다는 뜻일 테다. 이는 이상정 사후 유문을 수습하여 문집을 간행하거나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진 '진유眞儒'이자 이황의 적전嫡傳임을 공식화하기 위한 일련의 일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에서도 확인된다.<sup>3</sup> 그렇기에 문하에서 이종수·정종로와 함께 '호문삼종湖門三宗' 또는 이종수·류장원柳長源(東巖, 1724~1796)과 함께 '호문삼로湖門三老'로 불릴 만큼 비중 있는 인물로 인식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우리의 기억 속에 묻혀 버렸다. 그 이유는 아마도 오늘날 학문 풍토, 즉 학맥 전승 중심의 경향으로, 이는 관환官宦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과 그 스스로 처사라 하고 평생 학문에만 몰두하며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데 있지 않을까 한다.

그래서일까. 김종덕에 대한 그동안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1992년 증가에서 보관하던 그의 저술을 전집 7권으로 간행하고<sup>4</sup> 10년 뒤에 이를 기념하여 기획한 학술대회가 처음이었다. 그때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sup>5</sup>, 생애를 비롯해 문학과 저술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에 그쳤다. 그 이후 후속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장 핵심 부분인 사상적 검토는 더욱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김종덕의 사상이 이상정에 뿌리를 두고 있음은 부정할 수

3 추제협, 『의성 천사 김종덕 증가』(경북대 출판부, 2020), 69~70쪽.

4 1992년 계명한문학회에서 전집 7권으로 간행했다. 여기에는 『川沙先生文集』(1806년) 19권 10책과 『考證』(1774년)·『聖學正路』(1782년)·『聖學入門』(1790년)·『心經講錄刊補』(1795년)·『草廬問答』(1796년), 『立本』이 수록되어 있다.

5 동방한문화회 편, 『천사 김종덕의 문학과 사상』(2002). 수록된 4편의 논문은 다음과 같다. 이완재, 「천사 김종덕 선생의 도학」; 이동영, 「천사 김종덕 선생 시의 심상」; 김시황, 「천사 김종덕 선생의 생애와 교육」; 김홍영, 「천사 김종덕의 학문과 저술」.

없다. 다만 이를 묵수하기보다 자신의 사상적 입론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자양분으로 삼았다. 더욱이 선행 연구에서 이상정의 사상이 퇴계학인들에게서 흔히 예상되는 것과는 다른 사상적 결절을 보여주고 있음을 감안할 때<sup>6</sup>, 이는 김종덕을 거치면서 변모와 강화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확인하기 위해 이 글은 김종덕의 사상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다만 그의 사상이 공부론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이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맥락을 기늴해 보는 것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삶의 중요한 몇 국면을 따라 그의 학문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살핀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에 사상적으로 어떠한 방법적 선택을 했으며, 그 핵심적 특징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짐작하겠지만 이 연구는 김종덕의 사상에 대한 시론(試論)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계기로 그가 남긴 문헌을 대상으로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그의 사상적 특징이 온전히 규명된다면 이상정 문하에서 그가 어떠한 위상을 갖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up>7</sup>

6 이에 대한 대표적인 논문은 다음과 같다. 안영상, 「대산 이상정의 혼륜, 리발설의 착근에 있어서 여현설의 영향과 그 의미」, 『유교사상문화연구』 27(한국유교학회, 2006); 전병욱, 「대산 이상정의 사단칠정설에서 리활물의 의미」, 『퇴계학논집』 19(영남퇴계학연구원, 2016).

7 송찬식과 이완재는 학계에 통용되고 있는 이상정-남한조-류치명으로 이어지는 학맥에 의문을 제기한다. 병조참판을 지낸 류치명을 감안한, 이른바 관환 중심의 이해에서 비롯된 기존의 학맥을 비판하고 학적 전승을 고려할 때 이상정과 남한조 사이에 김종덕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찬식, 「해제」, 『한주전서1』(아세아문화사, 1980), 28쪽; 이완재(2002), 12~13쪽. 그러나 김종덕의 학맥적 위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남한조와 어떤 사상적 영향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의 사상적 특징을 온전히 규명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그 출발점에 해당한다.

## 2. 생애 — 이상정의 만남과 성인지학의 길

한 인물의 일생을 간명하게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거기에는 많은 곡절이 있기 때문이다. 김종덕의 생애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그의 일생을 편의상 나눈다면 아마 이상정의 만남 전후와 그 부재의 시기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김종덕은 7세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여 스스로 배우기를 즐겨했다. 15세 때에 조부로부터 독서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 이후 이에 힘입은 바 크다고 했다. 16세 때에는 『퇴계집退溪集』을 얻어 밤낮을 잇을 정도로 심취했다. 이후 『근사록近思錄』를 비롯해 『성리대전性理大全』·『대학大學』·『주자서朱子書』 등 주로 성리서性理書를 연이어 탐독했다. 이렇게 그는 가학을 계승하면서自得을 통한 학문적 성취 또한 나날이 깊어지고 있었다.

한편 김종덕은 과거지학에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는 29세 때인 1752년에 향해鄕解 양시兩試에, 이듬해 생원生員 회시會試에 합격했다. 몇 년의 공백 후 36세 때는 별과別科 향시鄕試에도 합격한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였다. 그 사이 과거지학에 대한 회의로 심적 갈등이 없지 않았던 모양이다. 여기에는 이상정 문하에 먼저 나아간 동생 종경宗敬 등의 영향과 이런 인연으로 선생을 직접 모시고 고무동鉤洞, 묵계서원默溪書院 등을 유람하며 퇴계학맥의 사상적 전통을 깊이 체감한 것이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알다시피 이상정은 김성일에게서 비롯된 호학湖學을 정립한 퇴계학맥의 적통이다. 그는 이재의 외손으로 14세 때부터 외조부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 1735년 과거에 급제하여 거주서에, 1739년에는 연원찰방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이내 사직하고 그해 9월에 고향으로 돌아와 대산서당大山書堂을 짓고 학문 탐구에만 몰두하고자 했다. 이런 모습에 사람들은 그를 ‘소퇴계小退溪’로 칭송하며, 이항 이후 학문의 적전을 얻은 인물로 널리 알려졌다. 이러한 다짐과 기대는 1753년 부득이 다시 벼슬길에 나아가면서

좌절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내 고향으로 돌아와 오직 학문 탐구와 제자 양성에만 전념했다.

이들의 만남은 바로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김종덕은 “입신출세를 위한 과거 공부는 사람의 본심을 무너뜨린다.”<sup>8</sup>라는 생각에 다시는 과거에 응하지 않기로 마음먹게 된다. 자신의 학문 목표를 성학聖學, 즉 성인됨을 위한 학문에 뜻을 두고 심성함양을 중요한 공부처로 삼아 전념하고자 다짐했다. 이러한 결심은 벼슬길에 나아갈 기회를 뒤로 한 채 급기야 1759년 이상정의 문하에 나아가기에 이른다.

그의 삶을 바꾼 중요한 순간이자 운명적인 결단이었다. 입문한 이듬해에 스승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관직에 나아가는 꿈을 버리니 근심은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하여 마음이 후련하다고 그동안의 막고생을 토로했다. 이어 이 길을 택한 것은 개발처開發處를 얻기 위한 것이니, 때 늦음을 만회하기 위해 어린아이처럼 열심히 배우겠다고 공언했다.<sup>9</sup>

그래서일까. 그는 문하에 있으면서 오직 학문에만 열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제 간의 강학은 물론 주고받은 서신에서뿐만 아니라 이종수·류장원·류도원·정종로·이만운·남한조·채제공·조술도趙述道 등 여러 동학들과 빈번히 교류하며 학문적 토론을 벌이는 모습들이 어렵지 않게 목격된다.

이는 산수 유람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1769년 청송靑松(지금의 盈德)에 있는 옥계玉溪를 유람한 적이 있었다. 당시 함께 했던 스승 이상정의 가르침, 즉 자연 경관에 심취하여 시를 주고받는 데 그치지 않고 도를

8 鄭宗魯, 『立齋先生文集』 권40, 「碣銘, 川沙金公墓碣銘」. “守道山樊, 絕意名利, 常歎科舉之學, 壞人心志.”

9 金宗德(이하 생략), 『川沙先生文集』 권2, 「書, 上大山先生[庚辰]」. “辭退屬耳, 歲律已改, 伏惟憂虞去, 而吉慶至矣. 偶得崔士教過顧, 請以所聞者告語, 渠雖辭避不當, 而猶不無因而開發處, 可喜. 但四十歲光陰已失其時, 而有若小兒挾冊隨學, 斷有得焉, 不亦難矣乎.”

찾는 방법을 터득하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는 모습은 배움의 연장선상이었다.<sup>10</sup>

이렇듯 김종덕은 늦은 입문 이후에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자신의 학문을 성숙 및 완성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은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법. 이상정은 병운(秉運)·병진(秉進)·병원(秉遠) 세 손자의 교육을 그에게 의탁했고, 이어 병세가 위독한 상황에서도 학문에 더욱 매진하여 우리 사문을 밝혀주기를 부탁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동문인 정종로와 제자인 정필규(鄭必奎(魯庵), 1760~1831)는 이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이 선생이 공을 공경하여 예로써 대함이 매우 지극했는데 그 손자 병운을 보내서 제자의 예를 드리고 배우도록 하기에 이르렀다. 병환이 위독하실 때 정신이 혼미하여 능히 일어나 앉아서 손님을 볼 수 없었으나 공이 들어오면 반드시 부축을 받아 일어나 앉았고, 학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실 때도 반드시 공을 기다려서 했으니, 공 같은 이는 어찌 이 선생의 진결(眞訣)을 얻은 이가 아니겠는가?<sup>11</sup>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이 선생이 저고리를 입고 띠를 매시며 선생을 불러 “평일에 강론하는 것은 단지 착실히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말한 것이 단지 일상적인 평범한 일에 불과하지만 심상한 가운데 오묘함이 있다.”라고 가르치셨다. 이에 선생이 일어나 절하고 “제가 비록 영민하지 못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라고 말했으니 부탁하여 전수하는 뜻이 있었던 것이다.<sup>12</sup>

10 『川沙先生文集』 권17, 「記, 玉溪遊山錄[己丑]」. “先生曰, 今行詩令, 只得日課而已, 不敢過也. 朱夫子遊山之令, 常以過節爲戒, 然地張之間不覺至百餘篇, 風致之發, 有不能禁者. 道間買取生魚烹於是, 鮮如新得者然, 可知其海門之邇也. (…)”

11 鄭宗魯, 『立齋先生文集』 권40, 「碣銘, 川沙金公墓碣銘」. “李先生敬禮公甚至, 至遣其孫秉運執贄受學. 疾革時奄奄不能起坐見賓客, 公入必扶起而坐, 其招語學者, 亦待公爲之, 若公豈非得李先生眞訣者哉.”

12 鄭必奎, 『魯庵先生文集』 권7, 「行狀, 先師川沙金先生言行錄」. “考終前二日, 李先生加上



이를 보면 그가 이상정의 문인 중 ‘호문삼중’, 또는 ‘호문삼로’로 칭송될 만큼 이른바 호학의 정맥을 계승한 인물임을 표명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지금의 평가는 이와 달리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고, 학파 내의 위상 또한 온당해 보이지 않는다.

나이 58세 때인 1781년, 김종덕은 스승 이상정의 죽음에 직면한다. 그 해에 앞서 지은 『매류설梅榴說』에서 때 늦은 매화와 석류꽃에 뒤늦게 학문적 성취를 이루고 있는 자신을 비유했던 그가 아니었던가.<sup>13</sup> 이러한 자신의 학문에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스승의 부재는 그 무엇으로도 표현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이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마음을 담아 그는 『만사輓詞』에서, 스승의 인연을 갑자기 끊어진 사다리에 비유하여 가려진 길에 멈춰선 자신을 그리며, 우러러보면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가지지 않고, 하늘을 보면 아득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눌 수 없다고 표현했다.

[…전략]

봉황새가 날아  
아득히 구름 가로 가버리니  
오르던 사다리 갑자기 끊어져  
찾던 길이 더욱 가려지네  
사람들은 높고 멀어  
구할 수 없다 의심하고  
평상의 중도中道를  
따르고자 하나 길이 없네

[…略]

鳳凰于飛  
渺渺雲際  
循梯遽絕  
尋路旋翳  
人疑高遠  
殆不可求  
平常之中  
欲從末由

衣拖帶引先生教曰, 平日所講論只欲著實用工. 又曰, 所言只家常茶飯, 然尋常中自有妙處. 先生起拜曰, 某雖不敏, 請事斯語矣.”

13 『川沙先生文集』 권16, 「雜著, 梅榴說」. “余種一梅, 花發與杏花只爭三五日. 得盆榴, 大暑花始發, 顧主人事事不早而晚, 故凡所從者皆晚, 甚可笑也. 然彼二物者, 雖晚而終有成. 余之學晚矣, 尚未之有得, 又可戒也.”

남기신 편질이 찬란하여	遺編燦然
안과 밖이 주자와 퇴계이니	表裏朱退
다음 세상이 멀지만	來世之遠
앞으로도 없으리라	無有乎爾
우러러보니 미치지 못할 듯하고	瞻望靡及
하늘을 보매 아득하니	視天茫茫
어떻게 사모의 마음 위로되랴	曷慰羹牆
부디 올리는 술 흠향하소서 <sup>14</sup>	或監薦觴

이때 그는 두 가지 일에 전념했다. 첫째, 이상정의 학문적 업적과 연보를 정리하는 일이었다. 이에 여러 동학들의 의견을 모아 흠어진 글을 수습하여 정리하고 이를 교정하는 데 집중했다. 여기에 스승의 아우였던 이광정 李光靖(小山, 1714~1789)과 이종수 등이 깊이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상정을 '진유'이자 이황의 적전임을 명확히 하는 일이었다. 1783년 유문의 정리가 거의 마무리될 즈음부터 시작해 1794년에는 자신이 직접 상소를 지어 올렸다. 이는 1811년 연이은 강회를 열어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어져, 급기야 1857년에 비로소 뜻하던 바를 이룰 수 있었다.

김종덕은 64세 때인 1787년 고향 사촌마을에 '유자정 孺子亭'을 건립했다. 여기서 만년을 보내며 강론과 저술에 힘쓰고자 결심했다. 이는 스승 사후 동료와 후학들의 요청에 1784년부터 후산정사 後山精舍에서 정기적인 강회 講會를 열었던 사실이 인연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자의 이름인 '유자'는 후한 때 남주 南州의 고사 高士인 서치 徐禪의 자이다. 서치는 자신이 선한 줄도 모르고 선한 행동을 할 만큼 자신의 마음을

14 李象靖, 『大山先生實紀』 권9, 『輓詞[金宗德]』.

다잡아 흐트러짐이 없었으며, 집안이 가난하여 몸소 농사를 지었음에도 향촌사회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전한다. 그는 바로 이러한 서치의 삶을 흠모하여 것처럼 말년을 보내고자 했던 것이다.<sup>15</sup>

이러한 소식에 주변의 많은 인재들이 모여들었고, 스승 문하의 동학들까지 강론과 배움을 위해 빈번한 출입이 이어졌다. 현재 전하는 『유자정급문록孺子亭及門錄』에 따르면, 이곳에서 배출한 대표 인물로는 정박·정필규·이병운·이병원·이아순李野淳·권득인權得仁·서활徐活·류송조柳崧祚·조우각趙友愨·황학黃澤 등 13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6</sup>

한편 평생 벼슬과는 거리가 멀었던 김종덕은 1789년 66세 때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자신을 천거해 준 경상감사 이병모李秉模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도 분수에 따라 살고자 하는 자신의 신념인 ‘세수청백世守清白’에 관직은 과분하며 병 또한 깊음을 이유로 사양했다.<sup>17</sup> 그럼에도 그는 1794년 71세에 수직壽職으로 다시 한번 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김종덕은 이러한 삶을 뒤로 한 채 1797년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15 『川沙先生文集』 권17, 「記, 孺子亭記」. “惟孺子不知其有善, 而善善不倦者也. (….) 門族二三人爲余作亭於沙村之小谷, 請名于余, 余以平日之所尙慕者命, 衆皆悅之. 悅之者悅其同高士之居也. (….)”; 鄭璞, 『南屏集』 권3, 「記跋, 孺子亭記」. “嗚呼, 士之知, 已或在曠世, 曲江之碑, 東湖之懷. 吾未知其所知, 孰深孰淺. 而今日川沙公乃復神心契, 寤寐太息殆欲. 往從南昌之山與之耦耕, 而不可得焉, 則其旨豈不質. 而近俚微婉, 而無迹, 未嘗無事於食力之內, 而亦未嘗有事乎食力之外. 若使川沙公之徒, 知所以善學, 則孺子之道, 求諸其師可知惟是.”

16 金宗德, 『孺子亭及門錄』(김향희 소장본). 『유자정급문록』에는 기록 연대를 알 수 없는 필사본과 문중에서 제공한 활자본이 존재한다. 필사본에는 130명의 문인에 대한 본관, 관계를, 활자본에는 119명의 문인에 대한 본관, 거주지를 기록했다. 둘 사이에는 남한조 등 문인 차이가 있다.

17 『川沙先生文集』 권4, 「書, 答李方伯[秉模]」. “閣下承朝家寄屬之, 重體聖明採詢之意要, 令草野賤品共觀, 清筵盛謨. 顧宗德亦化中一物爾, 冗陋洪劣猶有一分螻蟻之誠, 因此一事得以近日月之餘光, 誠迷昧之未圖而惘衷之至願也, 豈敢以寡識醜狀猥爲辭遜也. (….)”

정종로는 「묘갈명」에서 그의 학문이 ‘경敬’을 중지로 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공은 어려서부터 남보다 총명했고 자질과 성품이 도에 가까웠다. 이어 소호리 蘇湖里에 가서 배우면서 전일한 마음으로 섬겼다. 학문을 닦는 단계를 한결같이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강구하고 체험하기를 잠시도 쉬지 않았다. 대개 그 입지立志가 원대하고 공부가 엄밀하여 넓게 하되 범범하게 하지 않고 간략하되 비루한 데 빠질까 두려워했다. 실오라기나 털끝만 한 것까지 분석함이 절실한 이치가 아님이 없었고 돌이켜 살펴 스스로 경계함이 모두 정성스럽고 바르게 하는 공부였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경主敬하여 나날이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진 까닭에 이 선생이 자주 그 독실함이 훌륭하다고 칭찬하셨다. 그 학문이 더욱 밝고 덕이 더욱 높은 데 이르러서는 얼굴에 환한 기상이 나타나고 등 뒤로 후한 덕용德容이 넘쳤다. 말은 엄정하고 뜻은 확고했으며, 몸가짐과 행동하는 사이에는 법도가 엄하고 사물을 맞이하는 때에는 덕성이 가득했다. 이를 보는 사람들이 도道가 있는 군자라고 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sup>18</sup>

이렇게 보면, 김종덕의 삶에 스승 이상정의 영향은 지대했다. 과거에 뜻을 두었으나 이내 자신이 바라는 길이 아님을 깨닫고 이상정을 따라 오직 성인지학을 목표로 평생 심성함양공부에 전념했던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학문에 대한 열의는 이상정의 부재에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가 말년에 지은 정자의 이름을 ‘유자’라 정한 데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즉 학문 탐구와 제자 양성을 통한 학맥 전승은 물론 서치와 같은 삶을 살다 조용히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18 鄭宗魯, 『立齋先生文集』 권40, 「碣銘, 川沙金公墓碣銘」. “公自幼聰穎過人, 資稟近道. 既負笈湖上, 專心服事. 進修階級, 一遵師教, 講究體驗, 無時間斷. 蓋其立志遠大, 着工嚴密, 博而不務於泛, 約而恐失於陋. 縷析毫分, 無非切實之理, 反省自警, 皆是誠正之工. 而終始主敬, 日新又新, 故李先生亟稱其篤實可尚. 及其學益明而德益崇, 則面背盡, 言厲旨確, 動容周旋之間, 矩度森然, 應事接物之際, 德性藹然. 見之者莫不以爲有道君子也.”

### 3. 단서 — 성리설과 『심경강록간보』의 특징

앞서 언급한 대로 김종덕은 학문의 목표를 성학, 즉 성인됨을 위한 학문에 두었다. 그리고 이에 이르는 길은 수기修己를 바탕으로 한 위기지학爲己之學에 있으며, 자신은 여기에 힘쓸 뿐이라고 하면서 하학下學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는 이황의 사상을 온축한 『성학십도聖學十圖』가 성학을 위한 수기의 설계와 방법을 제시했고, 김굉필金宏弼(寒暄堂, 1454~1504) 이후 도학의 전승에서 퇴계학인들에게 하학지사는 필수적으로 요청되었음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주자학들의 일반적인 생각이기에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성인의 체용은 천지와 합하여 생각할 것도 없이 저절로 나타나 원근과 상하가 모두 하나같이 지극하니 어찌 사람들이 헤아려 형용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볼 수 있는 것은 평상을 넘어선 유현한 것이 아니고 다만 공양恭讓하고 친목親睦하는 것일 뿐이다. 이것이 어찌 꼭 성인이어야만 가능한 것이겠는가. 성인에게는 신의를 체득하고 순리를 통달하며 몸에 배어 자연스럽게 신비로운 변화인 것이고, 중인에게는 삼가 지켜야 할 윤리이며 가정을 다스리는 근본인 것이니,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성인을 배우려는 사람이 그저 성인과 하늘이 구별이 없다는 것만 알아서 아득하고 고원한 데에서 구하며 처음부터 지극한 경계만을 생각하고 오늘 당장에 쓰일 공양과 친목은 알지 못하니 이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sup>19</sup>

19 『川沙先生全集』 권7, 『聖學入門』. “聖人體用與天地，吻合不待作意，而自然發現，遠近上下一齊至極，豈人之可測，而形容所及哉。然其可見者，亦非幽深玄澗超絕平常也，只不過恭讓與親睦。此豈必聖人而後能哉。在聖人爲體信達順通神光海之化，而在衆人爲循規謹節篤倫齊家之本，誠人人之可行也。學聖人者，但知聖天無間求之於廣漠高遠之域，而先從安安光變上想像，不知恭讓與親睦爲今日受用之地，於己分何益哉。”

성인의 경지는 고원한 무엇이 아닌 일상에 행하는 ‘공양’과 ‘친목’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공손하고 겸양하며 친밀한 마음과 태도, 이는 『논어(論語)』 「학이(學而)」편에 나오는 다섯 가지 미덕 중 일부로 모두 인간관계에 필요한 기본적 덕목이다.<sup>20</sup> 성인지학이란 바로 이러한 실천 덕목을 일상생활에 힘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는 제자들에게도 학문의 도를 언급할 때 늘 용모(容貌)와 일용(日用)에 힘쓰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했다.<sup>21</sup> 다만 그는 이러한 학문이 중요한 궁극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사람이 “천하에 많은 일이 있는데 하필 학문이 중요한 까닭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니 (내가) “천하 사람이 모두 선해서 천하 사람들이 모두 평안할 수 있다면 학문은 할 필요가 없다. 만세의 군주가 모두 요순과 같고 만세의 신하가 모두 고은(高隱)이나 기(箕)와 같다면 학문은 없어도 좋을 것이다. 학자는 모든 임금이 요순을 본받게 하고 모든 신하가 고은과 기를 본받게 하여 사람들이 모두 선하게 되어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대답했다.<sup>22</sup>

김종덕은 학문이 중요한 이유를 인간다움의 실현에서 찾았다. 즉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 인격을 이루는 데에 있다고 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인용문 이후 언급을 보면, 이러한 주장은 하상대(夏商代)에 처음 제기되었으나 그 뜻을 잃었다가 송대(宋代)에 이르러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고 했으니, 바로 유학의 전통을 이은 주자학(朱子學)을 염두에 둔 것일 테다. 결국 인간의 도덕적 실현은 주자학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20 『論語』, 「學而」. “子貢曰, ‘夫子溫, 良, 恭, 儉, 讓以得之. 夫子之求之也, 其諸異乎人之求之與.’”

21 徐活, 『邁菴文集』 권4, 『草廬見聞錄』. “大抵爲學之道, 必從容貌日用上用工夫而已.”

22 『川沙先生全集』 권4, 『草廬問答』 권1. “問者曰, 天下之事衆矣, 而必以學爲重者何也. 答者曰, 天下之人皆善, 而天下之民皆安, 則無用學爲也. 萬世之君皆如堯舜, 而萬世之佐皆皋夔, 則無學可也. 學者要以君法堯舜, 臣效皋夔, 使斯人皆善而不困也.”

그럼 주자학의 어떤 점이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것일까. 여기서 잠시 주자학의 요령要領을 떠올려 보자. 흔히 주자학은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구도 아래 천천, 즉 자연 세계의 질서에서 인간의 위상과 책임을 묻는다.<sup>23</sup> 이는 도덕형이상학의 기치 아래 학문의 목표가 인간의 도덕적 완성과 그 확장 에 있음을 나타낸다. 그렇기에 인간은 이러한 질서를 성선의 당위적 근거로 삼아 이를 보존 및 확충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다. 다만 현실적 장애인 기질에 따른 사사로운 욕망이 늘 일어나 이를 가리곤 하기에 공부를 통한 끊임없는 회복의 과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주자학의 체계에서 윤리적 문제는 결국 기질의 장애를 극복하여 내 마음의 리가 만물의 리와 다르지 않음을 드러내는 데 있는 만큼, 김종덕은 심성문제와 그 공부에 집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우음 偶吟」이란 시이다.

천지만물은 동일한 하나의 리理이니	天地萬物同一理
마음의 안과 밖에 다시 다른 것은 없네	腔子內外更無他
비록 그러하나 대본大本의 주됨은 나에게 있으니	雖然大本主在我
한번 측은지심 보는 것이 어떨까 하네 <sup>24</sup>	試看惻隱心如何

그는 리일분수理一分殊의 관점에서 만물의 동일성을 전제한 뒤 만물의 주체인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맹자의 성선에 바탕을 둔 심성론을 전개할 것임을 짐작케 한다. 그러면 그는 주자학의 전통에 충실하고자 했던 것일까. 평소 자득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였기에 이에 대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3 한형조, 「퇴계의 『성학십도』, 주자학의 설계도」, 『조선 유학의 거장들』(문학동네, 2008), 85쪽.

24 『川沙先生文集』 권1, 「詩, 偶吟」.

우선 맹자의 성선설에 대해 논한 「성선설性善說」을 살펴보자. 여기서 김중덕은 맹자가 말한 성선이 실질적인 공효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실천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간에게 선한 본성은 늘 불안한 요소이다. 기질에 의한 사사로운 욕망이 언제 가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성선을 추상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이름뿐인 헛된 것이 될 뿐 실질적인 이익은 없다고 했다. 이에 절박하게 하나씩 실천하는 데 힘쓰되 성선에 순응하고 어긋나는 것을 경계하여 내외內外, 정조精粗, 대소大小에 이르러 조금이라도 방만하거나 지나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sup>25</sup> 즉 성이 선하다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천을 통해서만이 그 본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성선의 근원을 짐작하게 하는 주돈이周敦頤의 「태극도설太極圖說」을 이해하는 데에서도 다르지 않다. 그는 「태극도설說太極圖說說」에서 태극의 핵심은 ‘중정인의中正仁義’에 있으니 태극공부의 핵심 또한 이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했다. 그러니 이는 ‘주정主靜’을 통해 길한 것을 추구하되 흉한 것을 억제하는 데에 힘쓰므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보다 궁극적으로 오성五性이 감동感動할 때가 선악의 갈림길로 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sup>26</sup> 여기서 선악의 기미를 파악하는 것은 결국 공부 방법을 요청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러한 심성에 대한 주장은 주자학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주정에 대한 언급은 이황의 생각에 연동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바, 마음의

25 『川沙先生全集』 권16, 「雜著, 性善說」. “必求復得此性之善, 而其間自有許多節拍階級, 一一實踐而力行之. 知其如是, 而方順乎性善而必循之, 知其不如是, 而有違乎性善而必戒之. 至於內外遠近精粗大小, 無一毫放過, 然後方實得其性之善. 知性之知, 盡性之盡, 誠爲性善之實用也.”

26 위의 책, 「雜著, 太極圖說說」. “愚故曰, 太極工夫準的, 是定之以中正仁義, 而主靜一句, 用力處, 是脩吉悖凶一句. 學者最要關頭, 是五性感動一句.”



문제, 특히 악의 근원적 제어를 위한 미발 상태의 공부를 지적한 것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이와 더불어 그의 심성에 대한 논의에는 다소 이질적인 면도 보여준다.

『선악개천리설善惡皆天理說』을 보자. 김종덕은 인간의 선악이 본래 천리이나 그 구분은 본연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마음이 성을 함의하고 있으니 천리의 본연을 간직하고 있다고 전제한다. 선과 악은 인간에게 비롯된 것이니 그 천리의 마음이 합당한 여부에 따라 선과 악이 구별된다면서, 선이 때에 합당하여 천리의 본연을 간직한 것이라면 악은 이를 잃은 것이라고 했다. 이를 불로 예로 들면 이것이 음식을 할 때는 합당함을 얻었기에 선이지만 사람을 해칠 때는 합당함을 잃었기에 악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다.<sup>27</sup>

이는 일찍이 정호程頤의 주장을 바탕으로 정개칭鄭介淸(困齋, 1529~1590)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호는 천지에 나눔이 없듯이 선과 악이 본래 천리로 이미 함께 존재한다고 했다. 다만 악은 혹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생각은 주희朱熹에게도 가감 없이 이어진다. 물에 맑은 것과 탁한 것이 있지만 물이라는 점에서는 같듯이 선과 악은 천리에 근원하나 악의 리는 없기에 악의 변화는 인간의 책임에 귀결되는 데에 동의했던 것이다.<sup>28</sup>

정개칭은 이를 기의 관점에서 재해석했다. 먼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구분한다. 즉 본연지성에서 보면 인간과 동물은 다르지 않다. 그런데

27 위의 책, 『雜著, 善惡皆天理說』. “愛與惡是天理之所由出, 而乃與天理相反. 比如同火也, 而炊飯則善, 殺人則惡也. 雖世間大罪惡, 皆從反理而得, 而初亦不可不謂之天理, 但不當時便不是天理之本然也.”

28 김철호, 『악은 선으로부터 시작된다 — 정호의 선악개천리에 대한 주희의 해석』, 『동양철학연구』 100(동양철학연구회, 2019), 336~341쪽.

인간에게 부여된 성은 본연지성이 아닌 기질지성이기에 선과 악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 리는 기의 조리일 뿐이며 인간에게 기의 작용은 매우 중요하기에, 이러한 작용에 따른 차이가 없지 않으니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불급이 악을 발생하게 한다고 했다.

김종덕은 바로 이러한 정개청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한 논란이 없지 않은 만큼 악을 이미 상정한다는 것은 맹자의 성선을 따르는 주자학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를 개선한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기의 관점을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선과 악의 근원이 다르지 않음을 인정한 점에서, 이는 결국 현실의 악을 부정하지 않으므로, 인간의 윤리적 문제, 즉 이러한 악을 어떻게 선으로 바꿀 수 있는가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한 의도가 아닐까 한다. 그런 점에서 천리의 본연을 잃어 악이 되지 않도록 중절<sup>中節</sup>의 마땅함을 찾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게 부각되어야 했다.

그런 점에서 『심경강록간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책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체화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심경강록간보』는 김종덕이 72세 때인 1795년에 『심경강록心經講錄』을 보완하기 위해 간행한 것이다. 『심경강록』은 이황의 강의를 이덕홍李德弘(良齋, 1541~1596)과 이함형李咸亨(天山齋, 1550~1586)이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이황의 확인을 받지 못해 그 정확성에 의문이 많았던 터였다.

이에 이상정은 김종덕의 아우인 김종경金宗敬(苟齋, 1732~1785)에게 「경의장」 이후를 보완하도록 부탁했다. 김종경은 『주서강록간보朱書講錄刊補』의 범례에 따르면 『퇴계집』과 조호익曹好益(芝山, 1545~1609)의 『심경질의고오心經質疑考誤』를 참고하여 잘못된 부분을 삭제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으나 미처 마무리를 짓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를 다시 아우

김종섭(金宗燮, 濟庵, 1743~1791)이 잇고자 했으나 그 또한 일찍 유명을 달리 했다. 김종덕은 이를 안타까워하다 마침내 이종수·정종로 등 여러 동학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완성하게 된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관련된 구절에 대해 의심나는 부분을 『퇴계집』에서 직접 확인하여 정리해 놓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황이 제자들과 『심경』을 토론한 내용을 번다할 정도로 자세히 기록한 부분이 눈에 띈다. 이는 김종덕이 주희와 이황의 편지글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항목별로 정리해 둔 바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sup>29</sup>

그렇게 보면, 책의 주된 내용은 심법(心法)이다. 당연히 이황의 중요한 견해가 망라되어 있다. 이어 12권 말미에는 ‘안(案)’이란 항목을 설정하여 이상정의 견해를 덧붙이고 있는데, 이는 김종덕을 비롯한 그의 문인들 사이에 공유된 견해로 보인다. 이를 통해 이황과 이상정의 동(同)異(異)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중기 퇴계학인들이 이황의 사상을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체로 이황의 견해를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 특히 마음을 리와 기의 합으로 보아 마음에서 도덕적 근거를 확보한다는 점과 존덕성 증시적 경향을 보인다는 점 등이 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sup>30</sup> 물론 다소 이질적인 것도 없지 않는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29 『川沙先生全集』 권5, 『考證』, 『序』. “夫得孔門傳授之統者晦庵也. 得朱門嫡宗之旨者退陶也. 兩夫子片言隻字, 孰非妙道精義之發, 而其使人感發而興起, 若親承誨諭於几席之間, 切於受用變化之功, 則惟書札爲最耳. 況其尤關而甚緊者, 悉皆表章著見於節要之篇條序, 易尋段落易定. 苟使低首虛心俯讀仰思十年二十年反復, 講習習之不已, 熟之又熟, 則文句義理不待較考比勘, 而瞭然於心目之間庶幾, 融會貫一原原畢照所謂嚴心大法大規模自然有得於己矣.”

30 김기주, 「퇴계심학의 특징과 그 전승 — 『심경강록간보』를 중심으로, 『범한철학』 37(범한철학회, 2005), 226~231쪽.

우선, 심을 리와 기의 합으로 보는 점에서 유사하다. 주자학에서는 심을 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황은 이를 리와 기의 합으로 이해했다. 물론 성이 심 안에 있으니 당연한 것처럼 생각될지 모른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심의 체용(體用), 즉 감정이 일어나기 전과 후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마음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함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상정 또한 기본적으로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더욱이 ‘심무출입(心無出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함으로써 생각과 감정, 행동을 표현하는 주체로서 마음의 특징을 더욱 확고히 하는 데 힘썼다.<sup>31</sup>

반면 성리설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두드러진다. 가령 주자학에서 사단칠정은 포함관계로, 인심도심을 대립관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음은 그 근원이 다르지만 감정은 근원이 성으로 같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황은 이 둘의 관계가 다르지 않다고 하며 사단을 도심에, 칠정을 인심에 배속시켰다. 이유 또한 그 근원이 같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이상정은 심은 물론 성과 정을 원칙적으로 하나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어떤 이는 사단을 정이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칠정을 정이라고 하는데 사람에게서 두 가지 정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정이 발하는 것은 리를 위주로 하기도 하고 기를 위주로 하기도 합니다. 기를 위주로 하는 것이 칠정이고, 리를 위주로 하는 것이 사단인데, 어떻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까?”라고 답했다. 또 “리는 본래 형체가 없는데, 만약 기가 없다면 어떻게 홀로 발하는 리가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세상에는 리 없는 기가 없고, 기 없는 리도 없습니다. 사단은 리가 발하되 기가 따르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하되 리가 타는 것입니다. 리가 발하는데 기가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발하더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기가 발하되 리가 그것을 타지 않으면 이욕에 빠져 금수가 될

31 전병철, 『「晩修錄」에 드러난 대산 이상정의 학문 토대』, 『퇴계학논집』 9(영남퇴계학연구원, 2011), 58~60쪽.

뿐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정해진 이치입니다.”라고 답했다.<sup>32</sup>

공부론에 대해서도 이러한 점은 비슷하다. 주희의 만년정론에 대한 논란에 대해 이황은 존덕성(尊德性)의 마음공부와 도문학(道問學)의 경전공부에 대한 병행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존덕성 중시적 태도는 말년에 도문학의 말폐에 따른 일시적인 강조라고 했다. 그러나 이상정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황돈이 주자가 존덕성의 강조를 통해 그 학문의 폐단을 고치려 했다는 말은 그리 나쁘지 않다. 그러나 황돈이 주자가 말년에 도문학을 거의 폐하고 오로지 존덕성만을 강조한 것을 만년정론이라고 말한 것은 옳지 않다. 단지 그 학문의 폐단을 고치려 한 것이라면 어떻게 다른 한쪽에 편중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모아 놓은 열두 단락의 말은 모두 주자의 만년정론이라고 하지만 석자중과 정윤부 등의 글은 40세 이전에 이미 저술한 것이고, 말년에 학문의 폐단을 고치려 한 의도로 쓴 것은 아니다.<sup>33</sup>

이상정이 보기에 주희는 분명 존덕성공부에 기운 면이 있다는 것이다. 학문의 폐단을 고칠 의도였다면 원론을 재차 강조하는 편이 낫고, 더욱이 그 근거로 언급한 글들은 모두 40대 이전에 쓴 글이라는 점에서 말년이라기보다 그 변화의 시기가 아마 이때였을 것으로 짐작했다.

32 『川沙先生全集』 권7, 『心經講錄刊補』, 「第二篇」. “問, ‘或以四端爲情, 或以七情爲情, 人之情有二致歟?’ 答曰, ‘情之發, 或主於理, 或主於氣. 氣之發七情是也, 理之發四端是也. 安有二致?’ 問, ‘理本無形, 若無是氣, 則奚有獨發之理乎?’ 曰, ‘天下無無理之氣, 亦無無氣之理. 四端理發而氣隨之, 七情氣發而理乘之. 理而無氣之隨, 則做出來不成, 氣而無理之乘, 則陷利慾, 而爲禽獸. 此不易之定理者.’”

33 위의 책, 같은 곳, 「第四篇」. “黃墩論朱子以尊德性救末學之弊, 亦自好. 但黃墩意謂朱子末年廢却道問學, 一邊專就德性上用功而曰定論也. 此大不然直是救弊而已, 何有偏重耶? 此所撫十二條皆謂晚年之論, 而答石子重程允夫等書, 在四十歲前, 不待晚年救弊之意自如此.”

이렇게 보면 이황 또한 병행을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긴 하지만 주정을 통한 존덕성공부를 강조하는 면도 없지 않은 점이 묘하게 겹친다. 그가 『심경』에 심취하던 때에 주희의 스승이었던 이동李侗(延平, 1093~1163)에 대한 흠모와 정좌구중설靜坐求中說에 대한 관심은 이에 더욱 확신을 갖게 한다.

김종덕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마음공부에 좀 더 천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공부에 본원本原과 지엽枝葉의 구별이 있으니, 본원에 우선 힘을 쓰면 지엽은 이에 순응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본원은 마음이며, 지엽은 말과 행동, 일상에 허다한 명색名色에서 볼 수 있는 것”<sup>34</sup>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마음을 광명하고 통철하게 하여 모든 것을 주재하고 포섭함으로써 사물 현상에 따라 부합하도록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무엇보다 마음공부의 중요성을 명확히 한 말로 이해된다.

#### 4. 입론 — 거경공부 중시와 정좌구중설

주자학에서는 두 가지 공부법을 제시한다. 격물궁리格物窮理와 거경함양居敬涵養이 그것이다. 전자를 흔히 경전공부라고 한다면, 후자를 마음공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나 새의 두 날개와 같아서 어느 하나에 편중되거나 폐할 수 없다고 했다.

김종덕 또한 이러한 전제를 부정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스승 이상정의

34 『川沙先生全集』 권4, 『草廬問答』 권1. “問, ‘工夫有本原枝葉之別. 先從本原上着力, 則大者先立枝葉自順矣. 日子之所謂本原者何也, 枝葉者何也, 如何而謂之着力也.’ 曰, ‘本原者心也, 枝葉者見於言動日用許多名色也.’”

영향 또한 없지 않다. 그가 학문의 방법과 자세에 대해 물으니 이상정은 경전 공부와 존심 공부를 병행하기를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제 생각에는 이런 급박하고 계교하는 생각을 모두 버리고 『대학』·『논어』·『맹자』 등의 책을 반복해서 연구해야 합니다. 성현의 기상과 도리의 체면體面을 보아서 깊이 잠심하고 충분히 몸에 배게 하여 그 의미가 기뻐할 만하다는 것을 실제로 본다면 각박하게 억제하지 않더라도 병통이 자연히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보면 마음이 일정하게 보존되고 조금씩 점검하여 반드시 마음을 보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에서 늘 잊지 않고 또 억지로 조장하지 않는다면 자기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훌륭히 진전됨이 있을 것입니다.<sup>35</sup>

우선 사서四書 등 경전 공부를 통해 성현의 기상과 도리를 알게 되고 이를 체득하면 억지로 하지 않더라도 병통이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평소에는 존심 공부를 통해 순전한 본성을 보존하는 것을 천천히 하다 보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진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공부를 통해 내 안의 본성과 만물의 천리가 하나가 되는 ‘심여리일心與理’을 깨닫고 이러한 앎을 실천하여 실질적인 공효를 얻는 ‘지행일치知行一致’에도 이를 수 있다고 했다.<sup>36</sup>

이렇게 경전공부에서 보면, 김종덕은 사서를 중심에 두되<sup>37</sup> 『주자서朱子書』·

35 李象靖, 『大山先生文集』 권24, 「書, 答金道彦」. “愚意且一切放下此等急切計較意思, 取大學語孟等書, 反復玩索. 見得聖賢氣象, 道理體面, 涵泳浸漬, 有以實見其意味之可悅, 則不待刻切沮抑而病痛自然消除矣. 見諸日用之間, 則又平平存在, 略略檢點, 必有事焉而勿忘助, 不自覺知而忽有進焉.”

36 李象靖, 『大山先生文集』 권17, 「書, 答柳叔文叔遠[己丑]」. “今日當以大學語孟爲先, 虛心遊意, 反復浸灌, 使其意味浹洽. 路脈平實, 漸次進步, 腳踏實地. 及其積累純熟之久, 則理與心一, 習與身安, 所謂深造自得居安資深之妙, 當不離於此而得之.”

37 徐活, 『邁塾文集』 권4, 「草廬見聞錄」. “又曰, ‘欲讀何書?’, 活對曰, ‘欲受大學’, 先生曰,

『퇴계서退溪書』 등 경전 탐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대학』은 학문의 규모와 단계를 알 수 있는 것으로, 궁리와 존심에 중요한 지침이 된다고 강조한다.<sup>38</sup> 이러한 경문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면 선현들의 견해를 일일이 확인하고 비교하면서 판단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여 스승이나 동학에게 자문을 구하며, 그 결과 바람직한 의견이 도출되지 않으면 여기에 이를 때까지 끝없는 토론을 이어 갔다. 이상정과 이종수·류장원 등에게 보낸 서신들이 모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여러 말을 듣고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없다면 끝내 학문에 들어갈 길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미 학문에 들어갈 길을 알지 못한다면 비록 아무리 많은 책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데 그칠 것이니 실제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sup>39</sup>

다만 그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공부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경전공부는 올바른 행동의 지침이나 선악 판단의 근거로 작용할 뿐<sup>40</sup>, 이에 근거하여 끊임없이 실천하는 것은 마음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와 연관된 이야기로, 그는 독서를 통해 심心和 身의 합일을 이루는

---

‘大學一書工夫，階梯盡在其中，苟能於此有得焉，一生受用不盡，豈可以篇袞之少而忽之也.’”

38 『川沙先生全集』 권4, 『草廬問答』 권1. “問，學問之規模階級，大學一書詳矣，(…)曰，此意亦善.(…)”

39 『川沙先生全集』 권7, 『聖學入門』. “看得此等數段，不能怡然契合於心，則終無以知所從入，既不知所從入，則雖看許多說，只是資口耳，何益於事哉.”

40 李象靖, 『大山先生文集』 권6, 『書, 答申子長[甲午]』. “大抵知而不踐言而浮行，凡人之通患，然世間果有真知實諸，而不得力於行者乎. 此所以各據地頭，隨盡已功. 既不可以行之不力，而歸咎於知，又不可以恃所知之已明，待其行之自裕也. 蓋嘗思之，行之不能資於知者，是其致知窮理之工多在於幽妙虛遠，而不切於身心彝倫.”



방법에 대해 고민했던 모양이다. “산속으로 들어와 들은 바를 생각해 보니 사람들이 학문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구이지학(口耳之學)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성현의 절실한 말을 종일 읽는다 하더라도 문구의 어렵고 쉬운 것이나 자의(字義)의 같고 다름 정도만을 따질 뿐이다.”<sup>41</sup>라고 하면서 강론에만 치중한 결과를 비판하며, 성인의 절실한 말은 ‘주일무적(主一無適)’의 방법으로 터득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경전의 말을 마음으로 음미하고 몸으로 체득함으로써 마음과 몸이 합일에 이르러야 하며, 이는 마음공부를 전제한 독서가 행동의 지침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그는 성현의 심법인 정일집중(精一執中), 마음을 닦는 조존성찰(操存省察), 이동과 이황이 강조한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유도하는 주정법(主靜法) 등을 필요로 했다. 이를 통해 『자겸설(自謙說)』에서 말한 자겸(自謙), 즉 선을 가까이하고 악을 멀리하는 마음의 상태에서부터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무자기(毋自欺)의 상태를 거쳐 성의(誠意), 정심(正心)에 이르고자 노력했다.<sup>42</sup>

이러한 점에서 김종덕은 증자의 ‘삼귀(三貴)’와 ‘삼성(三省)’, 안자의 ‘사물(四物)’, 번지의 ‘인(仁)’ 등이 마음공부의 요체임을 강조한다. 즉 ‘삼귀’는 『논어』의 ‘태백’편에 나오는 도에 중요한 세 가지를, ‘삼성’은 『논어』의 ‘학이’편에 나오는 세 가지 성찰을 말한다. ‘사물’은 안연이 인에 대해 묻자 공자가 말한 것으로 예가 아닌 것에 대한 경계를, ‘인’은 번지가 인의 의미에 대해 묻자 공자가 말한 상황에 따른 공손과 경건 등 경계의 말들이다.

41 『川沙先生文集』 권2, 『書, 答大山先生』. “歸巢尋山之後, 試以所聞者思之, 夫人之不能有成者, 皆由於徒向口耳也. 終日所讀雖是聖賢切實之言, 而其所以辨之者, 只是文句之難易字義之同異爾.”

42 『川沙先生全集』 권16, 『雜著, 自謙說』. “有若設爲問答而言曰, 如何而謂之誠其意? 曰, 毋有自欺也. 如何而謂之毋自欺? 曰, 用意之盡底裏快足者, 是毋自欺也. 如何方可盡底裏快足? 曰, 好善如好好色, 惡惡如惡惡臭, 此之謂盡底裏快足.”

모두 일상생활에서 외적 공부를 언급한 것으로, 내외가 다르지 않으니 외적 공부를 통해 내적 공부인 마음을 간직하는 방법을 말했다. 이는 이황이 경공부에서 늘 정제엄숙(整齊嚴肅)을 우선으로 행해야 할 것으로 제시한 점을 연상시키며<sup>43</sup> 마음공부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김흥락(金興洛, 西山, 1827~1899)은 이를 읽어 장구 말단에만 빠진 허물을 반성하고 진정한 수신 공부에 부합하는 학문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던 것이다.

[헌종 10년 갑진, 1844년 선생 18세] 3월에 계상(溪上)으로 가서 『성학정로(聖學正路)』에 대해 강론하다. ○밤에 독서하다가 문득 놀라 두려워하면서 “배움이 진보하는 공부는 공리하고 수신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내가 요사이 공부하는 것은 모두 유명무실하고 장구의 말단에 급급해서 자신을 검속하고 조심하는 방안이 없으니 얻을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라고 탄식하였다. 이로부터 향상하는 데 뜻을 오로지하고 감히 한 시각도 허술히 보내지 않았다.<sup>44</sup>

그런데 김종덕은 이러한 마음공부에 대해 미발(未發) 때의 공부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주정’의 방법은 바로 이때의 공부를 말하는데, 그는 이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즉 주정은 공부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정(靜)은 본(本)이고 동(動)은 말(末)이니 정할 때에 계구(戒懼)가 있어야 본체를 보존할 수 있고 동할 때 깊이 성찰해야 정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의미라고 했다.<sup>45</sup> 그렇기에 주정은 ‘경정(敬靜)’의 개념으로 이해

43 李滉, 『退溪先生文集』 권35, 「書, 答李宏仲」. “滉竊謂四先生言敬之中, 程子整齊嚴肅一段, 卽朱子此書之意所從出, 始學之所當先, 莫切於此.”; 전병철(2011), 61쪽.

44 金興洛, 『西山先生文集附錄』 권1, 『年譜』. “憲宗十年 甲辰, 三月往溪上, 講聖學正路○夜讀書, 忽警惕而歎, 曰, ‘進學之工, 莫善於窮理修身. 余近來所工, 都是有名而無實, 屹屹於章句之末, 而無檢身操心之方, 所得果何事也.’ 自是專意向上, 不敢一刻放過.”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sup>46</sup> 그런 점에서 이는 이황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황은 1554년 『연평답문延平答問』의 발문跋文을 쓴다. 그는 이동을 안회顔回에 비견되는 인물이라 평하고 주희가 이동을 만나면서 심법의 오묘함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즉 정좌는 이정二程에게서 비롯되어 이동과 주희에게서 심학의 본원이 되었고, “연평의 ‘묵묵히 앉아서 마음을 맑게 하여 천리를 체인한다.’는 설은 학자가 책을 읽고 이치를 궁구하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sup>47</sup>라고 하여 이러한 마음공부가 경전공부의 전제가 됨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sup>48</sup>

사실 이상정은 이황의 리우위적 측면을 견지하고 있지만 지나친 편중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다. 그럼에도 앞서 언급한 대로 마음을 리와 기의 합으로 본다는 점, 정좌를 학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공부라고 하며, 경공부에서 정제엄숙을 우선시하여 외면을 제재하여 내면을 기르는, ‘제외양중制外養中’의 방법을 강조한 점<sup>49</sup> 등은 분명 이황의 견해를 계승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김종덕 또한 이러한 이상정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황의 견해에 보다

45 『川沙先生文集』 권7, 「書, 答李穡春」. “靜者爲本, 而動者爲末, 其動也, 必本乎靜.”; 「書, 答李穡春[丁巳]」. “亦如一學者之工, 知得靜爲之主靜有戒懼, 而要存其體, 動必審察而要失其靜, 主靜之義, 恐或近是也.”

46 『川沙先生文集』 권9, 「書, 答李健之」. “近者主靜之義, 一講再解, 轉承親切, 兩幅所喻無非至論. (….) 許多名目, 只此便是敬靜爲一處, 謹當置諸案上出入服膺耳.”

47 李滉, 『退溪先生言行錄』 권1, 「類編, 讀書」. “先生曰, 延平默坐登心體認天理之說, 最關於學者, 讀書窮理之法.”

48 추제현, 「이황의 사단칠정론과 마음공부」, 『안동학』 13(한국국학진흥원, 2014), 149~152쪽.

49 李象靖, 『大山先生文集』 권39, 「雜著, 晚修錄」. “靜坐, 是學問最初下工夫處.” “人心無形, 出入不定, 越把捉越不定. 須就視聽言語動作應接上做工夫, 令無毫髮放過, 此心方住得在這裏. 蓋身心內外, 本無二體, 制於外所以養其中, 此是日用切緊工夫.”

근접한 생각을 보여준다. 바로 이동의 정좌구중설인데, 이는 미발의 공부법이다. 이때 미발은 현실에서 만나는 어떤 사태의 고착, 즉 갈등과 막힘을 풀어내기 위해 공부하는 때를 말하며, 정좌구중은 이를 쇠락灑落의 마음 상태로 이행하기 위해 고요히 앉아 중<sub>中</sub>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러니 미발과 이발의 구분이 따로 있지 않다.<sup>50</sup> 이는 분명 주희의 미발에 대한 이해와 다르며 정좌에 대한 선학禪學의 혐의 또한 없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를 취한 것은 전적으로 이황의 말에 의지하여 이해했기 때문이다.<sup>51</sup>

다만 그는 이러한 이황의 견해와 달리 정좌를 미발 때의 공부로 한정하고, 이발 때에 경전공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때의 미발은 감정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를 말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내 생각에 중<sub>中</sub>이라는 것은 성<sub>性</sub>의 덕<sub>德</sub>과 도<sub>道</sub>의 체<sub>體</sub>를 형상화한 것으로 미발未發 전에는 서로 섞여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는 중<sub>中</sub>의 상태가 된다. 비록 범인凡人의 마음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경지는 없을 수 없다. […중략] 아무리 몸을 정좌靜坐 하여 마음을 발휘하려고 해도, […중략] 집중하여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없으니, 이른바 존양공부存養工夫가 손에 잡히지 않았다. 옛날에는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더욱 심해진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분수 외의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은 채, 다만 그것이 움직이는 곳을 정밀하게 살피는 일을 반복하니 본연本然의 천<sub>天</sub>에 위배되지 않고도 오래된 습속이 자연히 사라져 마음이 안정되고 기<sub>氣</sub>가 제자리를 잡는, 미발의 중을 하루아침에 자신에게서 직접 보게 되었다.<sup>52</sup>

50 백민정, 『쇄락의 수양문과 그 철학적 함축』, 성광동 외, 『스승 이통과의 만남과 대화』 (이학사, 2006), 95~105쪽.

51 『川沙先生全集』 권4, 『草廬問答』 권2. “延平朱子門戶規範一而已矣. 獨未發時求中之說, 差異於朱子意思. 然退陶先生延平答問跋文曰, (…).”

52 『川沙先生文集』 권2, 『書, 上大山先生[壬午]』. “嘗竊伏而思之中者, 所以狀性之德而形道之體也, 未發之前渾然在中, 無偏倚是之謂中. 則雖以凡人之心亦不能不有此箇境界. (….) 身雖靜坐而心常發揚, (….) 見一到不偏不倚之地, 所謂存養之工無可著手處矣. 昔未必不然

김종덕은 미발이라고 해서 감정의 싹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감정이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 싹이 이미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황의 미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만 미발의 강조로 인해 이발의 경계가 모호해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 마음에서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계신공구(戒愼恐懼)를 해야지 감정이 일어날 때를 기다려 성취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라고 했다.

만약 이 마음이 적연(寂然)하여 처음부터 희노(喜怒)의 싹이 없다면 단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알 수 있는 것도 없게 되어 듣거나 보는 것도 없게 된다. […] 다만 희노애락(喜怒哀樂)이 발하기 전에 배우고자 하는 이들은 먼저 계구(戒懼)를 해야지 발한 후를 기다려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sup>53</sup>

미발(未發)일 때 곧은 자세로 주재하여 모든 것을 살피며 관장하게 된다면 일용(日用)의 근본과 서로 접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용이 근거할 곳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다음 고요한 상태에서 올바르게 알맞은 공부(工夫)를 하게 되면 행동하는 데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 행동 또한 고요함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sup>54</sup>

인용문을 보면 그는 견문처(見聞處)를 이발에만 두고 미발에 두지 않는다면 정미함을 얻지 못한다고 했다. 이런 점에서 자사(子思)나 주희가 말한 ‘부도

---

而今覺尤有甚焉。欲救此病恐無分外別法，只就其動處精察裁之，節之不使有違於本然之天，則久久習熟，則自然有以心安氣貼分定位素一朝身親見，夫所謂未發之中耶。”

53 위의 책, 「書, 上大山先生[甲申]」. “若此心寂然初無喜怒之萌，則非但人之不知己亦無有，可知便是無可聞無可見也。(…) 只言喜怒哀樂未發之時，而欲學者先於此時已先戒懼，不待其已發之後也。”

54 위의 책, 「書, 上大山先生[丁亥]」. “未發之時，固宜卓立主宰照管總攝，有以爲酬應日用之本，而日用可據之地，正好著工靜固資益於動，而動亦不爲無助於靜也。”

불문不觀不聞, 즉 자신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듣지 못하는 것도 바로 희노에 락喜怒哀樂의 미발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 전에 계구戒懼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처럼 마음공부 또한 마찬가지로 뜻이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된 다음에 경전공부를 하여 그 옳은 뜻을 얻으면 이는 행동을 할 때에도 올바른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김종덕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즉 마음은 모든 변화의 근본이자 일신의 주재이기에 일정한 법칙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따르면 어긋남이 없지만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절도를 잃어 버려 모든 욕망이 일어나게 된다고 했다.

마음을 놓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일은 절도節度를 얻는다. 그러나 공부工夫도 본말本末의 순서가 있기에 그 법칙을 따르는 자는 또한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자의 말에 “함양하는 데에는 경에 힘써야 하고, 진학進學하는 데에는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달려 있다.”라고 했다. 경은 의관을 바르게 하고 남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추고 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지는 실천의 실질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후략]<sup>55</sup>

마음은 감정의 영역이기에 이성적으로 제어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에 순순한 마음을 놓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 가장 절실한 방법이 경공부敬工夫라고 했다. 즉 정제엄숙整齊嚴肅을 우선으로 하여 주일무적主一無適으로 일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이러한 주장이 이론과 논쟁에 그치기보다는 현실에 밀착된 결과물을 도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55 『川沙先生文集』 권3, 「書, 上大山先生[辛丑]」. “庶幾心不放棄而事中其節矣. 然工夫有本末之序, 所謂循其則者亦非可以意智而能之. 程子之言曰, 涵養須用敬, 進學則在致知. 敬者, 卽正衣冠尊瞻視當事致一之謂也. 知者, 卽因其踐履之實以致之也.”

더 컸던 듯하다. 그래서 그는 독서를 할 때면 늘 체인(體認)과 행처(行處)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개 도(道)란 하늘에 근원하여 사물에 이르기까지 널리 옹하고 일일이 합당하여 좋은 결과에 이르는 데 있는 것으로, 이는 처음과 끝이 일관됨을 아는 것과 같다. 독서를 할 때에는 체인(體認)과 함께 행처(行處)를 병행해야 한다. 이는 마치 물이 나무 가운데를 흐를 때 어떤 것에 막히거나 통하지 않으면 그것을 없애 유유히 흐르게 하는 것과 같다.<sup>56</sup>

여기서 도란 리(理)일분수의 실현이다. 천명에 의해 만물에 부여된 리의 보편적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다. 여기에 경전공부는 중요한 공부법이다. 다만 이것이 단순히 지식 습득에만 머무른다면 온전할 수 없다고 한다. 반드시 마음으로 성찰하여 깨닫는 과정이 전제되고 이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렇게 할 때 마치 막힌 물길을 뚫어 다시 흐르게 하듯이 배운 것을 재확인하여 참된 앞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김종덕은 성인됨을 위한 학문을 목표로 하여 위기지학에 전심했다. 여기에는 심성수양이 핵심을 이룬다고 보아 격물궁리와 거경합양의 병행을 전제로 하면서도 거경을 중시하는 공부법을 부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정좌구증을 통한 경공부를 우선시하고 더불어 사서, 그 중 『대학』을 중시하는 경전공부에 매진했다. 이는 스승의 설을 넘어 퇴계 이황의 학문에 닿아 있으며, 이를 더욱 올곧게 계승한 면이 없지 않다.

56 『川沙先生文集』 권2, 「書, 上大山先生」. “蓋自道也者, 原於天, 以下至汎應曲當之妙果, 若知其從頭至尾只是一也. 而及讀讀書, 體認爲一項行處爲一項工夫, 則如灌水之木中, 有一物隔而不通, 祛此卽流散一坪.”

## 5.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

김종덕은 이상정의 직전 제자로 학문 전수에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럼에도 생애는 물론 학문과 사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이 글은 그의 사상, 특히 공부론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우선 김종덕의 삶은 그가 흠모했던 서치와 같은 고사의 일생이었다. 여기에 학문은 중요한 매개체였는데, 그는 성학을 위한 위기지학을 학문의 목표로 삼았다. 그런 점에서 1759년 나이 36세 때 이상정의 문하에 나아간 것은 그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어릴 때 가학과 자학을 통해 학문을 시작한 이래 힘쓴 과거지학을 포기하고 성인지학을 목표로 산림에 은거하며 오직 학문에만 몰두하고자 결심하기 때문이다. 스승 이상정은 이러한 그의 다짐과 학문적 성취를 흡족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기에 죽기 전까지 강학과 서신을 통해 많은 학문적 교감이 이루어졌고, 이는 문하에 있던 여러 동문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사상에서도 김종덕은 스승의 학설을 계승하면서도 자신의 학문적 특징을 조심스레 개진하고 있다. 그는 성인지학의 핵심이 심성함양에 있다고 판단하여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거경 중시의 공부론을 전개했다.

주자학의 두 공부인 격물궁리와 거경함양은 주로 병행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는 성리에 대한 공부와 『심경강록간보』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경전공부보다 마음공부를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즉 성현의 말씀도 마음의 바름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온전히 체득될 수 없다고 했다. 물론 마음공부에서는 경을 통한 정제엄숙의 과정으로 외적인 가지런함을 통해 내적인 마음의 각성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이는 감정이 일어나기 전 미발 단계에서 마음의 중을 얻기 위해 경을 통한 주정공부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이황이 이동의 정좌구중설에 상당히 경도



되어 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다만 그는 이러한 미발 상태의 마음공부가 감정이 일어난 후인 이발 상태에서도 지속되지만 『대학』을 중심으로 한 경전공부를 겸하여 그 올바른 뜻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이러한 마음과 독서의 체인공부는 실천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온전해질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점에서 김종덕은 스승의 설을 넘어 퇴계 이황의 학문에 닿아 있으며, 이를 더욱 올곧게 계승한 면이 없지 않다. 물론 이러한 결론이 그의 사상적 특징을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금 연구는 그의 사상 중 두드러진 면이라고 판단되는 공부론에 주목하여 개괄적으로 논한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좀 더 온전한 주장으로 동의되려면 여기에 다양한 논의들이 추가되어야 한다. 즉 성리설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와 이것이 공부론과 어떻게 연동되는지를 좀 더 포괄적으로 살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제 간의 서신을 통해 학문적 수순관계와 동학들 간의 학문적 교류 양상은 물론 문하의 제자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대산 학파 내의 사상적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에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랬을 때 김종덕의 학문과 사상에 대한 보다 온전한 이해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논의에서 이러한 점들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 2020. 10. 23 : 논문투고

• 2020. 10. 29 ~ 11. 18 : 심사

• 2020. 11. 19 :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

## 참고문헌

한국문집총간(<http://www.ugyo.net/>)

유교넷(<https://db.itkc.or.kr/>)

『論語』

金宗德, 『川沙先生文集』.

\_\_\_\_\_, 『川沙先生全集』.

\_\_\_\_\_, 『孺子亭及門錄』.

金興洛, 『西山先生文集附錄』.

李象靖, 『高山及門錄』.

\_\_\_\_\_, 『大山先生文集』.

\_\_\_\_\_, 『大山先生實紀』.

李 滉, 『退溪山先生言行錄』.

\_\_\_\_\_, 『退溪先生文集』.

徐 活, 『邁野文集』.

鄭 璞, 『南屏集』.

鄭宗魯, 『立齋先生文集』.

鄭必奎, 『魯庵先生文集』.

李象靖(권경열 외 역), 『大山集』, 한국고전번역원, 2009~2012.

程敏政(김중석 역주), 『心經講解』, 이문출판사, 1999.

김기주, 「퇴계심학의 특징과 그 전승 — 『심경강록간보』를 중심으로, 『범  
한철학』 37, 범한철학회, 2005.

김철호, 「악은 선으로부터 시작된다 — 정호의 선악개천리에 대한 주희의  
해석, 『동양철학연구』 100, 동양철학연구회, 2019.

동방한문학회 편,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 천사 김종덕의 문학과 사상』,  
2002.

백민정, 「쇄락의 수양론과 그 철학적 함축, 성광동 외, 『스승 이통과의 만남』

- 과 대화』, 이학사, 2006.
- 송찬식, 『해제』, 『한주전서 1』, 아세아문화사, 1980.
- 안영상, 『대산 이상정의 혼륜, 리발설의 착근에 있어서 여헌설의 영향과 그 의미』, 『유교사상문화연구』 27, 한국유교학회, 2006.
- 전병욱, 『대산 이상정의 사단칠정설에서 리활물의 의미』, 『퇴계학논집』 19, 영남퇴계학연구원, 2016.
- 전병철, 『「晩修錄」에 드러난 대산 이상정의 학문 토대』, 『퇴계학논집』 9, 영남퇴계학연구원, 2011.
- 추제협, 『이황의 사단칠정론과 마음공부』, 『안동학』 13, 한국국학진흥원, 2014.
- \_\_\_\_\_, 『의성 천사 김종덕 종가』, 경북대 출판부, 2020.
- 한형조, 『퇴계의 『성학십도』, 주자학의 설계도』, 『조선 유학의 거장들』, 문학동네, 2008.
- 홍원식 외, 『조선시대 심경부주 주석서 해제』, 예문서원, 2007.

Abstract

A Study on Cheonsa Kim Jong-deok's Life and  
The theory of 'Keeping self awareness' and  
'Investigation of Principle'

Choo, Je-hyeop

Keimyung University Department of Philosophy Assistant Professor

This paper aims to outline Cheonsa Kim Jong-deok's ideas, especially self-cultivation. Although he was a student who learned directly from Daesan Yi, Sang-jeong, he is not known in detail about his studies and ideas, including his life. First of all, he outlined his life and revealed that he had set a goal of learning for self-implementation to become a Sage. Especially, at the age of 36 in 1759, Yi Sang-jeong's move to the ministry became a very important turning point in his life. This is because he decides to abandon his studies for the hard-working past and live in seclusion in the forest with the aim of becoming a Sage. Yi, Sang-jeong, her teacher, was satisfied with this, and until her death, there was a lot of academic communication through her lectures and letters, which had a significant impact on many of her alumni. In his studies, Kim Jong-deok inherits his teacher's theory while showing his own academic characteristics. He judged that the core of his studies to be a Sage was in "mind-cultivation," and developed the story of self-cultivation, which values Reserve Experience, in that specific way. In other words, in order

to gain the middle of the mind in the pre-emotional stage, he emphasized animating at quietness through Ching. This continues even after the emotion has occurred, but it is also important to get the right meaning in addition to the study of the study centered on The Great Learning. In addition, he stressed that such a mind and ‘realizing the state’ study of reading cannot be intact unless it is practiced at the same time. Beyond his teacher’s theory, he has reached out to Yi Hwang’s studies, which he inherited more uprightly.

Key words

: Kim Jong-deok, Yi, Sang-jeong, Learning for Self-improvement, Keeping self awareness, Centrality-Seeking and Quiet-sitting

